

# 덕산 사건과 프랑스 선교사 페롱

조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부교수, 종교학 전공  
hbthomas@aks.ac.kr

- I. 머리말
- II. 페롱 신부의 계획과 실행
- III. 페롱 신부의 변명
- IV. 동료 선교사들의 비판
- V. 페롱 신부의 인도 진출
- VI. 맺음말

## I. 머리말

1868년 5월 8일(양력) 금요일 밤 10시 서해안의 남양만(南陽灣)으로 북독일 연방의 국기를 게양한 배 한 척이 들어왔다. 이 배는 이튿날 오전 10시에 행담도(行擔島)에 다다랐다. 다음날인 5월 10일 일군의 낮선 사람들이 작은 배로 옮겨 타고 삼교천을 거슬러 올라가 오전 11시경 구만포(九萬浦)에 상륙하였다. 이들은 덕산읍(德山邑)에 위치한 가야산(伽倻山)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대원군의 부친 남연군(南延君, 1788-1836)이 묻혀 있는 묘가 있었다. 오후 5시 30분경에 도착하여 묘를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5시간 동안의 작업 끝에 봉분의 한쪽을 파내고 보니, 무덤은 석회 덩어리로 덮여 있었다. 단단하게 굳은 석회층을 뚫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히는 수 없이 이들은 작업을 중지하고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5월 11일 오전 6시경 배가 정박해 있던 곳으로 돌아갔고, 5월 12일 행담도에 이르러 원래 몰고 왔던 큰 배로 갈아타고 남양만을 떠났다. 영종도에서 조선인 군인들의 총격을 받고 퇴각한 이들은 5월 18일 조선을 떠나 상하이(上海)로 돌아갔다.<sup>1)</sup> 이 일은 흔히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나 ‘덕산 굴총 사건’ 등으로 불린다.<sup>2)</sup> 독일인 오페르트(Ernst Oppert), 미국인 쟈킨스(Frederick Jenkins) 그리고 프랑스인 페롱(Stanislas Féron) 신부 등이 남연군의 묘를 파헤쳐서 그 유골을 탈취한 다음에 이를 가지고 조선의 위정자를 협박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조선의 위정자들은 덕산 사건을 대하면서 박해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즉, 천주교는 사악한 가르침으로서 조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유교적 윤리 덕목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근절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금의 할아버지 무덤마저 파헤쳤다고 하니 과연 천주교도들은 패륜의 극치에 이른 흉악한 무리임이 판명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오래전부터 조선의 위정자들은 조선 신자들과 프랑스 선교사

---

1) 이상의 묘사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였다. 이종국, 「오페르트 굴총 사건의 진입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17(1983); 방상근 외 『한국천주교회사 3』(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2) 이 글에서는 사건의 주도자가 불분명하고, 관련자들이 도굴 행위에 가담한 목적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덕산 사건’으로만 지칭하고자 한다.

들이 외세를 끌어들이어 조정을 뒤엎으려는 흥계를 지녔다고 의심하였다. 이런 의심은 병인양요 당시 리델(Félix Clair Ridel) 신부가 길안내를 한 것이나, 덕산 사건에 조선 신자들이 연루된 것을 보면서 확신으로 굳어졌다.

덕산 사건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대개 오페르트와 쟈킨스가 장삿속에서 일을 모의하였다거나, 페롱 신부와 조선 신자들이 천주교를 박해하는 조선 조정에 대한 복수심에서 남연군 유해의 탈취를 계획했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sup>3)</sup> 또는 덕산 사건의 발상 자체는 조선 신자들이 갖고 있던 풍수지리설에 대한 이해나 페롱 신부와 오페르트의 조선 개방 욕구, 그리고 쟈킨스의 장삿속이 뒤섞인 것이었지만, 조선 천주교회가 초창기부터 추진하였던 대외개방론의 흐름 속에 배태되어 있었다고 해석하는 연구도 있다.<sup>4)</sup> 기존 연구들에서 덕산 사건의 발단과 경위를 설명할 때에는 거의 전적으로 오페르트가 남긴 기록<sup>5)</sup>에 의존하고 있다.<sup>6)</sup> 하지만 오페르트의 기록은 자기변명과 과장 해석이 게재되어 있어서 신빙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다.<sup>7)</sup>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이용되지 않았던 천주교 측의 자료를 사용하여 덕산 사건에 페롱 신부가 얼마나 가담했는지, 그리고 페롱 신부의 행각에 대해서 동료 선교사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페롱 신부가 남긴 서한 자료를 통하여 왜 그런 일을 시도했는지,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다.

3) 박일근, 「쟈킨스에 대한 주 상하이 미 영사재판: 남연군 묘소 도굴사건에 관하여」, 『부산대학교 논문집』 11(1970); 노계현, 「오페르트의 남연군 분묘 도굴만행과 한국의 조치」, 『국제법학회논총』 27권 1호(1982).

4) 원재연, 「오페르트의 덕산굴총사건과 내포 일대의 천주교 박해: 문호개방론과 관련하여」, 『백제문화』 29(2000).

5) 오페르트는 독일로 돌아간 뒤에 영사 재판을 받고 잠깐 감옥 생활을 하였다고 전해지며 그 이후에 자신의 조선 체험을 책으로 엮어서 출간하였다. 독일어본은 1880년에 나왔다. Ernst Oppert, *Ein Verschlossenes Land. Reisen nach Corea*(Leipzig: F. A. Brockhaus, 1880). 같은 해 런던에서 영어본이 나왔다. Ernest Oppert, *A Forbidden Land: Voyages to the Corea*(London: Sampson Low, Marston, Searle, and Rivington, 1880). 한국어 번역본은 2종이 나와 있다. 에른스트 오페르트 지, 한우근 역, 『조선기행』(일조각, 1974); E. J. 오페르트 지, 신복룡·장우영 역주, 『금단의 나라 조선』(집문당, 2000).

6) 덕산 사건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홍렬의 저술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유홍렬, 『고종치하 서학수난의 연구』(을유문화사, 1962).

7) 덕산 사건에 관한 오페르트 기록의 문제점은 많은 논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노혜경, 「오페르트의 조선 인식」, 『역사와 실학』 55(2014), 226-227쪽.

또한 덕산 사건에 깊이 연루된 폐롱 신부의 언행을 놓고, 폐롱 신부와 함께 조선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머물고 있었던 리델 신부와 칼레(Calais) 신부, 조선 대목구의 신임 선교사로 부임한 마르티노(Martineau) 신부, 그 밖에 파리의방전교회 상하이 대표부와 홍콩 총대표부의 동료 선교사들은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다음으로써 폐롱 신부가 인도 풍디세리 지방으로 진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사용할 자료는 파리의방전교회 문서고 소장 한국 관계 문서철 제579권, 제580권, 상하이 대표부 문서철 제330권, 그리고 덕산 사건 당시 파리 신학교에서 문서고를 담당하면서 조선 대목구의 대표 역할을 하였던 루세이(Rousseille) 신부가 조선 대목구 선교사들로부터 받았던 서한 문서철(H8) 등이다.<sup>8)</sup>

## II. 폐롱 신부의 계획과 실행

폐롱 신부가 모종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은 1867년 5월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겠다는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폐롱 신부는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1867년 5월 15일 서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프랑스 공사는 중국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 문제를 외교적으로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 저는 꽤 오래전부터 머릿속으로 궁리하던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미친 것이 아닌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일단 프랑스 공사의 교섭 결과를 기다릴 것입니다.<sup>9)</sup>

당시 폐롱 신부는 베이징(北京) 주재 프랑스 공사 랄르망(Lallemand) 백작의 외교적 중재를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칼레 신부가 중국

8) 제579권과 제580권 소재 서한 자료들을 분석할 때에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교회사 자료실에서 펴낸 『파리의방전교회 한국 관계 문서철 관독집』을 사용하였다. 오랜 기간 한국 천주교 관련 프랑스어 사료 관독에 종사한 연속진 선생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9) A-MEP: Vol. 579, ff. 1333-1334.

산둥(山東)에 위치한 철푸(芝罘, 현재의 옌타이(煙台))로 가서 조선 신자들을 보내어 조선 사정을 파악하고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로를 개척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한편으로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를 대비하여 모종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8월 무렵에 이르러 칼레 신부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중국 조정에 중재를 요청하던 탈르망 공사의 활동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페롱 신부는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당시 상하이 지역에서는 제네럴셔먼호 사건 때문에 미국의 군함이 조선으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러므로 페롱 신부는 프랑스 외교관의 도움 없이 자신이 직접 미국 군함에 동승하여 조선으로 가서 통역관을 자처하며 조선과 미국의 외교 협상을 중재하겠다는 생각도 품었다.<sup>10)</sup> 혹은 그러한 미명 아래에 오페르트와 젠킨스 등과 접촉하고 있었다. 결국 1867년 연말에 페롱 신부는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페롱 신부는 파리의 루세이 신부에게 보낸 1867년 12월 14일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언제 우리는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저는 내년 봄에 기대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잡다한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모험가들의 원정이 제때에 준비를 마치지 못하여 3월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저를 비롯하여 단지 두세 명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가로막는 일만 없다면, 이 원정은 대규모 원정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피를 흘리지도 않으니 천주께서 원하실 것입니다.<sup>11)</sup>

뿐만 아니라 페롱 신부는 파리의방전교회 홍콩 총대표부의 오주프(Osouf) 신부에게 보낸 1868년 2월 5일 서한에서도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거론하였다. 페롱 신부는 자신의 계획이 모두 준비되었으며, 부활 대축일에는 조선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프랑스 외교관들이 자신의 계획에 훼방 놓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오주프 신부도

10) 페롱 신부가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1867년 10월 17일 서한에는 홍콩에 집결한 미국 전함들이 홍콩을 떠나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것을 보면 페롱 신부는 조선으로 가기 위하여 프랑스만이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군함에 동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A-MEP: Vol. 579, f. 1357.

11) A-MEP: Vol. 579, f. 1373.

그 계획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야만 만약 나중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오주프 신부는 그것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2)</sup> 결국 페롱 신부는 1868년 3월에 가서야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어 간단히 보고하였다. 페롱 신부가 보낸 1868년 3월 22일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저는 여러분께 조선 입국 계획, 직접적으로는 이달 말에 있을 계획에 관하여 이미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절에 따른 물리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출발을 부활 대축일 이후로 미루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축복해주신다면 계획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을 만나지 않겠지요. [...] 사실 그 계획은 약간 무모한 것이기는 합니다. 조선의 왕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평화를 요청하게 하고, 또 과거 일에 대한 완전한 사과와 미래에 대한 전적인 보장을 인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총 한 방 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비현실적이지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쉬운 일입니다. [...] 프랑스 외교관들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언히 설왕설래하는 것을 피하려고 저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프랑스 당국자들의 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성공하더라도 일각에서는 세계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질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 조선이 개방된다면,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조선에서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폭풍우가 거세게 일고, 그 폭풍우를 잠재우기 위하여 저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sup>13)</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페롱 신부는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신의 결심과 각오를 밝혔을 뿐이다. 하지만 편지의 서두에서 이미 자신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보내기 이전에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무언가 언질을 주었으리라 추측된다. 위 인용문에 담긴 페롱 신부의 속내를 보면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직접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군사적인 원정은 아니지만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음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아무도 페롱 신부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최소한 리텔 신부와 칼레 신부,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리텔 신부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페롱 신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12) A-MEP: Vol. 579, f. 1399.

13) A-MEP: Vol. 579, ff. 1406-1407.

대충 알고 있었다. 그리고 칼레 신부는 폐롱 신부의 출항이 있기 1개월 전에야 비로소 계획을 알게 되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한 자료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폐롱 신부는 루세이 신부에게 보낸 1868년 2월 17일 서한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박해를 되살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3월 말에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러시아 국경에 희망을 두는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신부님이 이 편지를 받게 될 때에 저는 조선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 동료들에게는 비밀로 하였습니다. 오직 리텔 신부만이 알고 있습니다. 칼레 신부가 이곳에 없어서 리텔 신부하고만 의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에게는 아마 다음번 서한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up>14)</sup>

리텔 신부가 폐롱 신부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자료는 덕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리텔 신부가 오주프 신부에게 보낸 1868년 4월 21일 서한이다. 이 서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이것을 보면 리텔 신부는 폐롱 신부의 계획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폐롱 신부는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서 저에게 약간 말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 일을 저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회의에 회부하지 않는다면 찬성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명하지 않은 일이며, 적어도 회의를 거치지 않고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폐롱 신부는 자신이 장상이기에 상의할 의무가 없으며 그 누구와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폐롱 신부에게 우리 전교회 회칙에도 장상은 주요 사한의 경우 동료 신부들과 논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폐롱 신부는 대목구의 행정에 관한 문제에는 맞는 말이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일까요? 적어도 여태껏 폐롱 신부의 행동 방식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 제가 신부님께 그 계획을 전부 다 말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주십시오. 폐롱 신부가 저에게 양심상의 의무를 지워서 비밀을 지켜야 했고, 또 제 평가가 과장된 것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폐롱 신부가 참석하여 자신의 계획과 이유를 말하는 자리에서 동료 신부들과 토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제 생각들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sup>15)</sup>

세 번째로 칼레 신부가 폐롱 신부의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14) A-MEP: Vol. 579, f. 1403.

15) A-MEP: Vol. 579, ff. 1421-1423.

보여주는 자료는 파리 신학교의 카즈나브(Cazenave) 신부에게 보낸 1868년 5월 12일 서한이다. 칼레 신부는 페롱 신부가 프랑스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과 모의하여 조선으로 가려고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가 조선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다음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페롱 신부의 입국 이후 계획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선박 한 척이 조선에 간 듯합니다. 그리고 페롱 신부와 다른 동료들, 우리와 함께 있던 조선인 신자들도 미국 선박을 타고 간 것 같습니다. 페롱 신부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제가 4월 4일에 받은 서한에서 페롱 신부는 저에게 부활 주간 화요일 정도에 조선으로 떠날 것이니 증기선을 타고 상하이로 급히 돌아오라고 알렸습니다. 그때 조선으로 간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을 타고 어떻게 간다는 것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페롱 신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개적으로 조선에 재입국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칭찬할 만하다면 말이지요. 일단 프랑스인들에게 호소해볼 것이고, 안 되면 영국인들에게, 그도 안 되면 미국인들, 심지어 러시아인들에게까지 호소해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평화의 사절이기 때문에, 싸우러 가는 그들과는 함께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sup>16)</sup>

이상에서 보듯이 리텔 신부와 칼레 신부는 페롱 신부가 위험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페롱 신부를 만류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주교와 고참 선교사들이 모두 순교한 상황에서 페롱 신부는 가장 연배가 높은 선교사로서 조선 대목구의 장상에 준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페롱 신부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자. 먼저 상하이 대표부에서는 페롱 신부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였다. 이에 르모니에(Lemonnier) 신부는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1868년 2월 21일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페롱 신부가 상하이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난파하여 나가사키에 도착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곧 일본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페롱 신부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프랑스 사람들이 강화도를

---

16) A-MEP: Vol. 579, ff. 1426-1428.

떠난 뒤에 박해가 중지되었고, 조선 선교지는 생각하는 것만큼 고통을 겪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동료들이 4월 중에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이 얼마나 있는지는 더 모르겠습니다.<sup>17)</sup>

하지만 폐롱 신부가 자신의 계획을 극비에 부치고 상하이 대표부 신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5월에 접어들어서야 사태가 분명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르모니에 신부는 파리 신학교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1868년 5월 6일 서한에서 폐롱 신부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4일 전에 프로이센 깃발을 단 증기선 차이나호를 타고 상하이를 떠났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sup>18)</sup> 폐롱 신부의 출항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르티노 신부가 루세이 신부에게 보낸 1868년 5월 21일 서한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으로 가는 새로운 원정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경하을 장상폐롱 신부께서 말씀하셨지요. 예전에 폐롱 신부가 조선으로 가고자 랄프망 백작프랑스 공사에게 그의 비밀스런 계획을 전하였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자 미국인들에게까지도 기대를 걸었고, 이것 역시 여의치 못하자 결국 프로이센 상인 오펜트와 함께 조선 원정을 떠나기로 약정했던 것 같습니다. [...] 리텔 신부는 함께 가는 것을 거절했다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 폐롱 신부는 출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성공하면 프랑스는 불만이 많겠지만 자신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실패하면 최악의 인물이 되어 교황님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비난을 퍼부를 것이라고요. [...] 저는 폐롱 신부를 배웅하고자 배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조선인 6명도 폐롱 신부와 동행하였습니다. 떠날 당시 폐롱 신부는 수단 대신 일반인의 복장을 하였고, 프로이센 전함을 타고 나가사키를 거쳐 조선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sup>19)</sup>

마르티노 신부는 폐롱 신부가 수단을 벗고 일반인 복장을 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므로 폐롱 신부를 전송하러 나갔던 마르티노 신부 역시 폐롱 신부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어렵פות이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폐롱 신부가 상하이로 귀환한 뒤에 여러 가지 경로로 사태를 파악한 마르티노 신부는 루세이 신부에게 1868년 5월 31일 서한을 보내어 다음과

17) A-MEP: Vol. 330-2, f. 767.

18) A-MEP: Vol. 330-2, f. 769.

19) A-MEP: Vol. 579, ff. 1430-1435.

같이 보고하였다.

우리의 친애하는 장상[폐룡 신부]은 5월 1일 상하이로 출발하여 6일 나가사키를 거쳐 8일 저녁에 강화도에서 150-200리 떨어진 곳에 닿을 내렸습니다. 해안으로부터 100리 떨어진 곳에서 하선하였고, 30리 떨어진 덕산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함께 데려간 조선인들 중 단 3명만이 길안내를 위하여 하선이 허락되었는데, 그들 중 2명은 감시하지 않는 틈을 타서 달아나버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세한 사정을 말해준 사람은 세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폐룡 신부를 홀로 버려두고 싶지 않아서 그의 곁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마을 근처에는 높은 산이 있는데, 왕의 조상들, 섭정의 부모가 묻혀 있었습니다. 모험을 감행한 목적은 이 무덤에서 유골을 약탈하여, 조선을 유럽인들에게 개방하도록 왕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처음에 조선인들은 해적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폐룡 신부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아지를 구입하고자 흥정을 벌이다가 시비가 붙었고, 부근에 있던 조선인 신자들이 폐룡 신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sup>20)</sup>

마르티노 신부는 덕산에서 폐룡 신부 일행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당시 폐룡 신부를 따라갔던 조선인 신자 한 명으로부터 들었다고 하였다. 왕실 무덤을 도굴하려 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혀졌으며, 소동이 벌어질 때에 폐룡 신부의 신분이 발각되었다는 이야기도 등장한다. 사태의 심각성이 부각되자 마르티노 신부의 서한에 이어서 르모니에 신부도 파리 신학교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1868년 6월 3일 서한에서 폐룡 신부의 행적에 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지난번 서한에서 저는 폐룡 신부의 원정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게 되면 즉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제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침묵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폐룡 신부는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5월 1일 프로이센 깃발을 단 증기선 차이나호를 타고 떠났다가, 자신이 궁리한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연후에 예수 승천 대축일인 5월 21일 상하이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증기선이 귀환한 다음날 이곳의 지방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조선의 서쪽 해안가이자 강화도의 아래쪽이며, 덕산에 있던 신자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야산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신자들을 박해하고 우리 동료들을 학대한 현 조선 섭정의 부모가 묻혀 있습니다. 폐룡 신부의 생각은 이 무덤을 점령하고 두 시신을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섭정 부모의 시신을 일단 소유하면 섭정이 그것들을

---

20) A-MEP: Vol. 579, ff. 1447-1449.

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이건 할 것이고, 또 그에게 무슨 조건을 제시하건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페롱 신부는 오페르트라는 어떤 유대인 그리고 목사로 상하이에 왔다가 현재는 미국 영사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는 어느 미국인과 흥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의 재산을 만회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깊이 연루되었으며, 증기선 차이나 호를 자기네 돈으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돕도록 150명의 중국인 일꾼들, 40명가량의 마닐라 사람들, 그리고 20명가량의 유럽인 선원을 태웠습니다. 5월 1일 페롱 신부는 상하이에 머물고 있던 조선인 [판독불능명]과 함께 승선하였습니다. 나가사키에 잠시 기항했던 증기선은 조선으로 향해하였습니다. 증기선에 매달려 있던 작은 배는 강을 따라 그들이 점령하려고 했던 산에서 약 30리 떨어진 곳까지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유대인과 미국인은 배에 남아 있었고, 페롱 신부만 장터에 상륙하였다고 합니다. 페롱 신부는 작은 규모의 일행들을 이끌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들이 찾던 무덤을 발견하자 땅을 파았습니다. 그러나 봉분 밑에서 지하 무덤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벽돌 구조물을 발견하고 몹시 놀랐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와 같은 방해물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것을 부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지니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단념해야만 했고, 신속하게 작은 배로 돌아와서 증기선에 올랐습니다.<sup>21)</sup>

### Ⅲ. 페롱 신부의 변명

병인양요가 끝난 뒤인 1866년 연말에 페롱 신부는 상하이를 떠나 베이징으로 간 적이 있었다. 페롱 신부는 박해 종식과 조선 개방을 위해서 자신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베이징을 방문하였던 것이다. 그는 베이징에서 홍콩 총대표부의 오주프 신부에게 보낸 1867년 1월 18일 서한에서 자신이 베이징에 온 이유와 활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신부님께서 제가 베이징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제가 베이징 주재 프랑스 공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프랑스 공사 벨로네(Bellonet) 백작은 조선 문제에 대해서 지나친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사의 열정이 조금만 더 누그러지고, 또 우리의 조선 신자들이 조금만 더 제 뜻대로 잘 움직여서 저의 편지를 대원군에게 전달한다면, 평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 제가 베이징에 온 목적은 조선 정부와 직접 접촉하여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21) A-MEP: Vol. 330-2, f. 775.

하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저는 군대를 따라서 우리 전교지로 돌아가는 것보다, 중재자이자 구원자로서 돌아가는 것을 훨씬 더 원합니다. [...] 제가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새해 책력을 얻으려는 조선의 사신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곧 사신들의 우두머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 조정으로 가지고 가서 외교 문제를 담당하는 고관에게 전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막고 싶어 하기 때문에 크게 반길 것입니다. 조선 임금의 회답이 올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sup>22)</sup>

당시만 해도 폐롱 신부는 조선과 평화를 맺는 방법에 관해서 군사 작전을 반대하면서 외교적인 교섭을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나아가서 조선의 사정을 잘 아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조선 조정에 편지를 보내어 평화 협상을 제안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베이징 주재 프랑스 공사나 프랑스 외교관 그리고 프랑스 함대의 장군들이 더 지나친 열의를 가지고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보았다. 하지만 조선과의 외교적 중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 과연 현실적인 것이었을까? 오히려 폐롱 신부에 대해서 정반대로 평가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즉, 1866년 당시 파리외방전교회 상하이 대표부의 대표였던 카즈나브 신부가 파리에 보낸 보고서를 보면 폐롱 신부의 언행에 대한 동료 선교사들의 평가가 담겨 있다. 상하이에 있던 카즈나브 신부가 파리 신학교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1866년 12월 8일 서한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폐롱 신부가 이 달 2일에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조선의 사신들이 베이징에 도착할 때 기다렸다가 사신들을 따라오는 상인들을 통해서 조선 전교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신들이 평화에 관한 제안들을 가지고 온다면 조선인들의 우호적인 태도를 잘 활용하려는 시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도'라고 한 것은 폐롱 신부가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료 선교사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폐롱 신부의 동료들은 이런 계획에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폐롱 신부가 언행에 조심성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그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sup>23)</sup>

베이징을 다녀오던 1867년 상반기까지 폐롱 신부의 입장은 병인양요와 같은 대규모 군사 행동을 반대하면서 평화적인 교섭을 통해서 박해를

22) A-MEP: Vol. 579, ff. 1248-1250.

23) A-MEP: Vol. 330, f. 696.

종식시키고 조선의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폐롱 신부는 줄곧 병인양요를 실패한 사건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과연 병인양요가 어떤 점에서 실패한 원정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의아한 대목도 존재한다. 폐롱 신부는 1867년 1월 8일 홍콩의 오주프 신부에게 두 통의 서한을 보냈는데, 두 번째 서한에 병인양요, 특히 강화도 전투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강화도 원정은 제독과 함장의 무능함 때문에 두 차례의 시도가 실패한 후에 상륙한 부대만 따져도 600명에 이르는 프랑스 군인들이 공격하지도 않는 800명의 조선인 앞에서 퇴각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해안가에 무기들을 버리고 밤중에 다시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있던 조선인들은 강을 따라서 총을 쏘며 함대를 격퇴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제독은 함대가 도착하자 주민들이 모두 도망쳐버려서 싸우지도 않고 쉽게 점령했던 도시를 불태우고 퇴각했으면서도 자기 공적을 자랑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에는 왕궁이 있어서, 골동품 애호가들이 호기로 삼을 만한 곳이었습니다.<sup>24)</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폐롱 신부가 프랑스 함대의 군사 작전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패한 전투를 비판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만약 후자라면 더 철저한 군사적 개입을 원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폐롱 신부는 병인양요를 실패한 원정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중국 조정을 움직여서 조선으로 하여금 평화 교섭에 나서게 하거나, 폐롱 신부 자신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서 프랑스와 조선의 관계 개선을 이루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그로부터 1년 뒤에 폐롱 신부는 로즈 제독의 군사 작전보다 더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덕산 사건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덕산 사건에 대해서 폐롱 신부는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 폐롱 신부는 조선에서 상하이로 돌아온 직후에 파리 신학교의 루세이 신부에게 보낸 1868년 5월 22일 서한에서 오페르트와 함께했던 원정이라 하여 덕산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곳 상하이에 오페르트라는 상인이 있는데, 조선과 관계가 수립되면 상업적인

24) A-MEP: Vol. 579, f. 1252.

이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자비를 들여서 평화적인 원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오페르트에게 통역을 담당해주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제가 제시한 대로 실행되기만 한다면 계획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항해는 무척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 정부도 공개적으로 이 항해를 후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장한 손으로 공격할 생각도 없었으며, 우리와 함께 간 사람들 누구의 생명도 위태롭게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격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외관상으로만 무장을 하고, 총을 만져본 적도 없는 중국인 인부 100명, 마닐라 선원 20명, 유럽인 10명이 함께 갔습니다.

강화도 남쪽에 도착하여 우리는 섬에 보루가 세워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2년 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영종도라는 섬이었는데, 해안의 수비를 감시하는 관원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간 떨어진 곳에 닿을 내렸으며, 이튿날 아침이 되자 5명의 남자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부인했지만 저는 그들이 관원의 부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은 하급 무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이내 제일 영리해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조선을 지배하는 흡혈귀대원군을 지칭함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유럽과의 관계에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싶다는 바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전쟁을 두려워하였으며, 유럽인의 원정이 벌어진다면 다른 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부근에 있던 섬들을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외교인들에게서도 똑같은 의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섭정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서 자신들의 상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섭정에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고수하면 전쟁에 직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아들의 왕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삼 일째 되던 날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에서는 굉장히 긴 육설을 늘어놓은 다음에 난파한 유럽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든 적으로 간주할 것이며, 다른 말은 할 게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선언으로 끝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출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튿날 제가 새로운 편지를 지참하고 물으로 갔습니다. 배의 함장이 20명의 호위대를 거느리고 함께 가고 싶어 했습니다. 도시에 접근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무장 군인들이 성벽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들을 공격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려고 혼자 내리고 싶었지만, 제가 지켜볼 사이도 없이 그들은 모두 신속하게 상륙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로부터 뒤에 물러서 있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고 오페르트 씨하고 단 둘이서만 다가가서 저의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렵사리 편지를 받았으며 성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끝나고 우리는 즉시 다시 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함장이 성벽 바깥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교섭하는 동안에 우리 쪽 사람들은 경솔하게도 성벽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부터 사방에서 동시에 총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박처럼 쏟아지는 총알 아래에서 급하게 물러났습니다. 육지에는 마닐라 선원 2명이 죽어 있었으며, 유럽인 1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sup>25)</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폐롱 신부는 자신과 오페르트가 주동이 되어 벌인 조선 항해를 보고하면서 덕산에서 있었던 도굴 시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누락시켰다. 뿐만 아니라 오페르트가 조선을 개항시켜 상업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였으며, 자신은 통역관의 자격으로 따라가서 대원군에게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서신을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폐롱 신부가 중점적으로 말한 영종도 사건은 덕산에서 굴충 사건이 미수에 그친 뒤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듯 폐롱 신부는 파리 신학교에 보고하면서 덕산 사건의 주요 내용,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일을 완전히 은폐하였다.

게다가 폐롱 신부는 파리에 편지를 보낸 것과 같은 날인 1868년 5월 22일에 홍콩 총대표부의 오주프 신부에게도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여기서도 실패한 조선 원정과 관련하여 폐롱 신부 자신이 권고했던 몇 가지 대책이 망각되었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너무 지체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만 말하고 있다.<sup>26)</sup> 그러면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조선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 덕산 사건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확산되었고, 급기야 1868년 8월에는 덕산 사건에 참여했던 미국인 켈킨스에 대한 영사 재판이 상하이에서 벌어졌다. 그러자 상하이에 귀환한 직후에 조선 입국로를 탐색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의 동북 지방으로 도피하였다가 일본으로 건너간 폐롱 신부도 자신이 조선에서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폐롱 신부는 나가사키에서 상하이 대표부의 르모니에 신부에게 보낸 1868년 9월 2일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제가 행했던 것들, 저를 이끌었던 동기들, 그리고 천주 앞에서 저를 변호해줄 이유들을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설명한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역시 저의 무죄를 증명해줄 것이며 이 스캔들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일찍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하이에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떠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문에 연루될 필요가 없었지만 저는 공적인 조사를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정확한 근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프랑스 공사가 진행한 절차는

25) A-MEP: Vol. 579, ff. 1436-1439.

26) A-MEP: Vol. 579, f. 1444.

충동적이었으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숙고가 없었습니다. 그는 후회할 것이며, 차라리 제가 없었던 것이 그에게는 다행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미국인이나 영국인으로 둔갑시켜 프랑스 공사의 관할권 바깥에 두는 것이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확실히 저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시각에서 우리 전교회를 이 사건에 연루시킬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개인으로 말한다면, 오로지 전교지에 또는 오히려 그보다는 천주께 봉사하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천주께서 저를 불러주셨던 바로 그 전교회 속에서 그리고 그 전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희생이라고 한다면 전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전교회마저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전교회가 저를 전교회에 봉사하기는커녕 해로울 뿐이라고 판정한다면, 저는 제 모든 마음을 내색하지 않고 즐거이 희생을 통해서 전교회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전교회를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 가운데 저를 놀라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성공하였을 경우에도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한 성공도 비난하지만, 아울러 일이 실패하면 그 선한 의도마저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판이 충분히 명료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쁜 성공을 후회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그들이 저를 공격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입니다. 하지만 비난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저 자신이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미리 그것들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sup>27)</sup>

폐롱 신부는 여전히 덕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이 깔고 있었던 동기의 순수성만 강변하고 있다.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원인을 나쁜 것으로 몰고 가지 말아야 한다는 식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폐롱 신부의 서한에 실린 내용들로 미루어 보자면,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침략하는 군사적인 행동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박해를 종식시키려는 선한 동기에서 덕산 사건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폐롱 신부는 프랑스 외교관들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파리외방전교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리텔 신부나 칼레 신부, 마르티노 신부 등 조선 대목구 소속 선교사들과 파리외방전교회 상하이 대표부의 르모니에 신부 등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 폐롱 신부가 의도적으로 감추었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

27) A-MEP: Vol. 579, ff. 1497-1500.

거론하면서 강경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이것은 덕산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인 것이다. 따라서 폐롱 신부를 제외한 나머지 프랑스 선교사들은 덕산 사건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V. 동료 선교사들의 비판

덕산 사건은 상하이에서 즉각 큰 소란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영자 신문이었던 《노스 차이나 데일리 뉴스(North China Daily News)》의 1868년 5월 22일자 기사에는 「도굴을 목적으로 한 어설픈 원정(amateur resurrectionary expedition)」이라는 제목 아래 로마 가톨릭 사제의 복장을 한 어느 첩자(emissary)가 조선에 가서 권력자들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는 곳을 찾으려 했다는 내용이 실렸다.<sup>28)</sup> 뿐만 아니라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려고 칼르망 공사가 1868년 6월 22일 르모니에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다. 대외비 서한이라는 단서가 붙은 이 편지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다.

지난해 상하이에 갔을 때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조선 문제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중 한 사람(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도 듣지 못했구요.)이 이상한 비밀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 신부는 조선인들을 좌지우지할 방법을 알고 있는데, 해안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무덤에서 죽은 왕의 유골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이런 무덤을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므로 돌려받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복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경악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선교사 한 명의 광기 어린 무모함으로 인하여 전체 선교사들의 평판이 위태롭게 되었으니 신속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sup>29)</sup>

칼르망 공사의 문의 서한에 대해서 르모니에 신부는 1868년 6월 29일 답장을 보냈다. 자신은 상하이에서 발간하는 신문 기사를 통해 비로소 차이나호의 원정에 대해서 알았고,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모두

28) A-MEP: Vol. 579, f. 1446.

29) A-MEP: Vol. 579, ff. 1459-1460.

놀라고 괴로워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선 대목구 소속의 선교사들과 자기 자신은 그런 경솔한 행동을 비난하였고, 서둘러 파리 지도자들에게 기사가 실린 신문과 함께 보고서를 보냈다고 하였다.<sup>30)</sup>

한편 리텔 신부는 덕산 사건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자 1868년 7월 4일 파리 신학교의 카즈나브 신부에게 서한을 보내어, 도굴 사건은 조선에서 천주교와 신부들을 혐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또 박해자들이 신자들을 한층 탄압하는 데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sup>31)</sup> 뿐만 아니라 약 2개월 뒤에는 폐롱 신부의 전황을 비판하는 편지를 카즈나브 신부에게 보냈다. 1868년 8월 31일자로 된 이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다.

저는 칼레 신부의 서한을 방금 받았는데, 폐롱 신부가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저와 상의를 하였고 또 저와 상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 폐롱 신부는 조선을 탈출하여 상하이에 도착한 뒤에 베이징으로 갈 계획을 세우면서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 언젠가 폐롱 신부, 칼레 신부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상하이의 프랑스 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조선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장악할 방법이 있는데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 또 언젠가는 폐롱 신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페르트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함께 조선으로 가서 조선 왕에게 통상을 위해 왕국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 섭정대원군의 부모 시신이 들어 있는 관을 탈취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의논하여 세운 계획이냐고 묻자, 그럴 시간도 없으며 불필요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sup>32)</sup>

이처럼 폐롱 신부는 조선 대목구 선교사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었다. 나중에 리텔 신부는 폐롱 신부를 좀 더 강한 어조로 비판하게 된다. 리텔 신부는 주교로 서임된 뒤에 두세(Doucet) 신부와 로베르(Robert) 신부를 대동하고 조선으로 들어왔다. 1877년 9월 11일 차쿠(岔溝)를 떠나 23일 황해도 장산곶에 상륙하였던 것이다. 서울에 머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리텔 주교는 1877년 12월 6일 파리 신학교의 델페슈(Delpech)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다.<sup>33)</sup> 리텔 주교가 델페슈 신부에

30) A-MEP: Vol. 579, ff. 1462-1463.

31) A-MEP: Vol. 579, ff. 1475-1476.

32) A-MEP: Vol. 579, ff. 1481-1484.

33) 이 편지를 쓴 지 약 두 달 뒤인 1878년 1월 28일 리텔 주교는 서울 자택에서 체포되었으나 베이징 주재 프랑스 공사의 요청으로 중국 정부가 개입한 덕분에 사형을 면하고

게 보낸 1877년 12월 6일 서한 가운데 페롱 신부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866년의 박해 때에는 조정의 체포 명령이 유럽인들과 그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는 집주인, 목사, 회장,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 신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으며, 여자와 아이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868년에 일어난 불행한 무덤 사건은 가장 끔찍한 박해를 촉발하였습니다. 페롱 신부는 자신의 계획이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확신했고, 상하이에 있던 조선인 신자들을 설득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몇몇은 그 계획에 휩쓸려 들어갔지만,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 페롱 신부는 반대하는 조선인 신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웠습니다. 조선 해안에 도착하여 하선할 때에는 총을 가지고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개머리판으로 신자들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 이후 조정에서 이 습격 사건을 알게 되자 천주교에 대해 격노하였습니다. 외교인들은 양반이건 평민이건 증오와 반감 그리고 복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왕의 할아버지 무덤을 모독하다니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여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신자들이 배교했다고 합니다. 이후 박해는 5년간 지속되었습니다.<sup>34)</sup>

페롱 신부가 상하이의 조선 신자들 가운데 몇 명을 강제로 태웠다가, 조선 신자들을 개머리판으로 때렸다는 이야기 등은 조선에서 신자들로부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리텔 주교는 덕산 사건 이후에 박해가 훨씬 더 혹독하고 잔인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페롱 신부의 행위에 대해서 한층 더 비판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5)</sup>

덕산 사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것은 칼레 신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칼레 신부는 파리의 카즈나브 신부에게 보낸 1868년 9월 1일 서한에서, 페롱 신부의 계획이 조선의 왕릉을 도굴하는 것이었음을 요동에 온 마르티노 신부와 리샤르(Richard) 신부를 통해 알게 되었는

---

6월에 중국으로 추방되었다.

34) A-MEP: Vol. 580, ff. 256-258.

35) 리텔 주교가 페롱 신부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리텔 주교 본인은 병인양요 과정에서 프랑스 함대를 안내하고 통역하는 역할을 하였던 전력을 지니고 있었다. 말하자면 프랑스 함대의 군사 작전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였던 것이다. 과연 리텔 주교는 병인양요에 참여한 자신과 덕산 사건에 연루된 페롱 신부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었던 것일까? 병인양요와 덕산 사건은 연장선 위에 있던 두 가지 사건이다. 그러므로 리텔 주교와 페롱 신부의 상호 입장을 검토하는 것 역시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데, 폐롱 신부가 그렇게 믿기지 않는 행동을 한 것에 놀라며, 나중에 어떻게 조선에 되돌아갈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하였다.<sup>36)</sup> 또한 칼레 신부는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1868년 9월 17일 서한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3명의 조선인 신자와 함께 만주로 온 지 1년을 훌쩍 넘겼을 때 저는 그들을 조선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자기 나라에 잘 도착하였고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명의 조선인 신자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김 프란치스코라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그를 잘 압니다. 학식이 있고, 양반이며, 매우 경건하고 무척 현명한 사람입니다. 베르뇌 주교님은 줄곧 그를 복사로 두었으며, 조선 사신들이 중국에 갈 때 조선 선교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베이징으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바오로인데, 박해가 터지기 직전에 세례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곳에서 첫 고해와 첫 영성체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박해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 배가 가서 왕의 조상 무덤을 모독한 이후로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섭정 혹은 왕의 아버지(대원군)는 천주교 신자 패거리 몇 명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야만인들이 무덤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확신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2,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서울에서만도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 저는 최근 카즈나브 신부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폐롱 신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너무나 해로운 원정에 대해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는 종교 의식은 조상에 대한 것입니다. 중국보다 백 배나 더 강합니다. 조선에서는 가장 고귀한 신분의 귀족이나 최고위직 고관까지도 매년 수차례 조상의 무덤에 자란 풀을 베러 갑니다. 박해가 터지기 전에 섭정은 지금은 순교하였지만 한때 고위직 신자였던 남(중심) 요한과 긴 대화를 나누면서, 천주교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지만 딱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조상을 공경하는 곳에서 그런 모독 행위를 하였으니 어떤 결과를 낳았겠습니까!<sup>37)</sup>

칼레 신부는 카즈나브 신부에게 보낸 1868년 10월 5일 서한에서도 폐롱 신부가 가담한 유감스러운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른 선교사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칼레 신부는 폐롱 신부 사건을 요동에 도착한 마르티노, 리샤르 신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폐롱 신부는 조선과 러시아 국경지대인 포시에트(Possiet, 木許謁)에서 돌아온 다음

36) A-MEP: Vol. 579, ff. 1494-1495.  
 37) A-MEP: Vol. 579, ff. 1514-1515, f. 1517.

나흘 후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페롱 신부는 다시 조선에 돌아오겠다고 말했으나 파리의 지도자들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사건으로 베이징에 온 조선인 고관 4명이 조선으로 돌아가면 선교사가 이번 일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져 페롱 신부는 두 번 다시 조선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칼레 신부는 다른 선교사들이 페롱 신부의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공사에게 보낸 칼레 신부의 서한 사본을 그대로 전하며 거듭 다른 선교사들은 이번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강조한다. 공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칼레 신부는 페롱 신부와 7년을 함께 생활하는 동안 그가 재능과 덕성이 뛰어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박해의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으면서 정신착란을 겪은 듯하고, 이로 인해 이번 사건에 개입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성공할 경우 실패했을 때보다 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사건에 개입함으로써 페롱 신부는 박해를 한층 가중시켰고 조선 재입국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편집증 환자임이 분명하다. 칼레 신부는 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반문(그런데도 어떻게 페롱 신부가 조선 선교지의 장상이 될 수 있었느냐)에 대비해서 파리의방전교회가 속한 교황청은 박해로 모든 지도자를 잃은 후 가장 나이 많은 선교사가 선교지의 장상이 된다고 선언했던 점을 인용하였다.<sup>38)</sup>

## V. 페롱 신부의 인도 진출

덕산 사건의 여파로 상하이가 시끄럽기 시작할 무렵에 페롱 신부는 상하이로 떠나 중국 대륙의 동북 지방을 향했다. 표면적인 목적은 조선으로 입국할 수 있는 육로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상하이의 마르티노 신부가 파리의 루세이 신부에게 보낸 1868년 8월 10일 서한에 잘 나타나 있다.

페롱 신부님이 북쪽 지방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칼레 신부님의 생각은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포시에트에 있는 조선인들이

38) A-MEP: Vol. 579, ff. 1529-1531.

그분을 알아볼 것이며, 유럽인들이 북쪽 지방을 통해 조선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곧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이 여행이 선교사들의 동의를 얻어서 착수되었다고 전갈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리텔 신부님, 블랑 신부님만이 아니라 리샤르 신부와 저도 칼레 신부님이 페롱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칼레 신부님은 북쪽 입국로를 모색하는 일과 관련한 모든 시도들을 완강히 반대한다고 쓰셨습니다. 칼레 신부님은 몇 달 동안 러시아에서 지냈던 로제(Roger) 신부님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던 것입니다.<sup>39)</sup>

그런데 페롱 신부는 1868년 9월 23일 홍콩의 오주프 신부에게 편지를 보낸다. 자신이 지금 뒤플렉스(Dupleix)호의 선상에 있으니, 배로 와 달라고 청하면서 프랑스로 돌아가 입을 수단 등 필수품을 부탁한다.<sup>40)</sup> 이것을 보면 9월 초에 나가사키로 갔다가 유럽으로 돌아가는 배에 승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페롱 신부는 1868년 11월 9일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신이 마르세유에 도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별도 않고 갑자기 프랑스에 오게 된 것에 지도자들이 매우 놀랄 것이나 자신이 돌아오게 된 이유를 잘 알 것이고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자며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용서를 구하였다.<sup>41)</sup>

마르세유를 거쳐서 파리로 간 페롱 신부는 파리에서 그리 오래 머물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1868년 11월 11일에 루세이 신부에게 간단한 메모를 남겼는데, 마르세유에 놓고 온 상자가 도착하면 자신의 물건들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갈 고향 마을<sup>42)</sup>의 지인 주소를 적어놓았다.<sup>43)</sup> 그리고 1868년 11월 20일에는 페롱 신부가 고향 마을인 동프롱에서 편지를 보냈다. 루세이 신부가 보내준 상자를 잘 받았는데, 자기 메모를 못 본 모양인지 루세이 신부가 갖고 있어야 할 것을 보내고,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식 젓가락과 알브랑 신부의 신학 책 그리고 불가타 성경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조선이 그립다는 말을 남겼다.<sup>44)</sup>

페롱 신부가 프랑스로 귀환한 이후에 조선 대목구 선교사들은 페롱

39) A-MEP: H8 Lettres de Corée au P. Rousseille 1867-1868.

40) A-MEP: Vol. 579, f. 1520.

41) A-MEP: Vol. 579, f. 1550.

42) 페롱 신부는 프랑스 서북쪽 노르망디 지방의 오르네(Orne) 현에 속한 동프롱(Domfront) 출신이었다.

43) A-MEP: H8 Lettres de Corée au P. Rousseille 1867-1868.

44) A-MEP: H8 Lettres de Corée au P. Rousseille 1867-1868.

신부가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였다. 먼저 차쿠의 성모설지전 성당에 있던 마르티노 신부는 파리의 루세이 신부에게 보낸 1869년 2월 10일<sup>45)</sup> 서한에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몇 달 전에 페롱 신부님이 돌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 결국 저는 신부님이 이곳으로 돌아오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의 신자들을 위해서나 또 우리 전교회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페롱 신부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 선교회들이나 유럽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느 연로한 선교사 한 분이 이번 달에 제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파리에서 페롱 신부의 귀환을 막지 못했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직 페롱 신부님을 다시 받아들이는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페롱 신부님이 돌아오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다른 신부님이 주교직을 받게 된다면) 페롱 신부님은 모든 어려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페롱 신부님은 너그럽지 않을 것입니다. 페롱 신부님은 다른 신부님들에게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sup>46)</sup>

페롱 신부가 조선 대목구로 귀환하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다. 이에 파리의 카즈나브 신부는 리텔 신부에게 보낸 1869년 3월 25일 서한에서 조선 대목구 후임 주교로 리텔 신부를 추천하였다는 소식을 전한다. 카즈나브 신부는 상하이 대표부에 있다가 신학교 지도자로 임명되어 파리 신학교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어서 리텔 신부와도 친분이 있었다. 그는 이 서한에서 리텔 신부를 마지막으로 ‘신부’로 부르겠다고 하면서, 교황청 포교성성에 그를 조선 대목구장으로 추천한 경위를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추신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페롱 씨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가족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떠나겠다고 합니다. 당분간 조선에 관해서는 지난 일로 인해 부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하간 두고 봐야겠습니다.”<sup>47)</sup> 카즈나브 신부의 말은 페롱 신부의 조선 귀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차 조선

45) 본래 이 서한에는 작성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되어 있다. 1869년의 전례력으로는 3월 28일이 부활 대축일이었다. 그러므로 이를 역산하면 마르티노 신부가 차쿠의 성모 설지전 성당에서 편지를 쓴 제의 수요일은 2월 10일이다.

46) A-MEP: H8 Lettres de Corée 1869-1871.

47) 켈릭스 클레르 리텔 저, 한국교회사연구소 번역위원회 역주, 『리텔 문서 I』(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214쪽.

대목구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책임이 리델 신부에게 있기 때문에 페롱 신부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묻고 있다.

상하이, 체푸, 차쿠 등지를 옮겨 다니며 조선 입국을 모색하던 리델 신부는 조선 대목구장직을 수락하기로 결정하였다. 1869년 6월 15일 비오 9세 교황이 리델 신부를 조선 대목구 제6대 대목구장으로 임명하였다. 리델 주교는 1870년 3월 3일 차쿠를 떠나 유럽으로 향했다. 5월 7일 마르세유 항구를 경유하여 11일 아침 로마에 도착하였다. 22일에는 교황을 알현하였다. 6월 5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로마 예수 성당에서 프랑스 루앙 대교구의 교구장이었던 본쇼즈(Bonnechose) 추기경, 만주 대목구장 베롤(Verrolles) 주교, 일본 대목구장 프티장(Petitjean) 주교의 주례로 주교로 성성되었다. 그런 다음에 1869년 2월부터 1870년 10월까지 개최된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하고, 1871년 7월 6일 중국의 상하이로 돌아왔다.

페롱 신부의 조선 대목구 복귀에 관한 문제는 1869년부터 187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즉, 리델 주교가 주교성성을 위하여 유럽으로 출발하기 직전부터 유럽에 체류하던 시기 동안에 페롱 신부의 귀환 문제가 논의되고 귀환 불가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먼저 마르티노 신부는 루세이 신부에게 보낸 1869년 9월 5일 서한에서 이렇게 말한다.

신부님은 페롱 신부님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신부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롱 신부님은 조선에 올 것입니다. 이 문제는 리델 신부님에게 달렸다고 하겠지만 말입니다. 페롱 신부님은 리델 신부님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움켜쥐고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sup>48)</sup>

하지만 1869년 연말에 리델 주교는 페롱 신부를 조선 대목구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찬성한다는 뜻을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전한다. 리델 주교는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1869년 12월 2일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선 선교지의 동료 신부님들과 상의한 끝에 저희 모두는 페롱 신부가 돌아오기를

---

48) A-MEP: H8 Lettres de Corée 1869-1871.

희망합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유럽인들과 베이징 주재 프랑스 공사관에서 가장 심각한 반대가 있겠지만, 그동안 꽤 시간이 흘러 사태가 진정되었고, 그 불행한 모험이 대부분 망각된 상태라서 돌아온다 해도 별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또 폐롱 신부가 상하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 일반 유럽인들은 폐롱 신부가 돌아오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베이징 공사의 명령을 수행하는 책임을 맡은 사령관도 폐롱 신부가 돌아오는 것에 공사관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선에서도 외교인들은 신부들이 누가 누군지 잘 알아볼 수 없고, 신자들은 폐롱 신부를 존경하고 있어 오히려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더욱이 신자들은 그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부들의 입장에서는 폐롱 신부가 돌아오기는 하되 좀 더 나중에 오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신부들은 회의를 통해 모든 일을 상의하여 결정하는 데 익숙해진 상태이고, 상황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행동규칙도 마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폐롱 신부가 돌아오게 되면 예전과는 달리 그 역시 공동체 규정 등에 따라 행동하리라고 봅니다.<sup>49)</sup>

리텔 주교는 덕산 사건이 이미 많이 잊혔기 때문에 폐롱 신부가 돌아온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조선의 신자들은 폐롱 신부가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중에 리텔 주교가 조선에 입국한 뒤에 보냈던 서한을 보면 폐롱 신부의 행동에 대해서 조선의 신자들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이것을 보면 당시까지만 해도 리텔 주교가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게다가 차쿠에서 조선 대목구 성직자 회의를 개최하여 선교사 행동규칙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폐롱 신부가 돌아온다고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독단적인 행동을 벌일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폐롱 신부는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1870년 2월 26일 서한에서 조선 귀환에 관한 본인의 소망을 밝혔다. 즉, 지도자들로부터 조선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리텔 주교와 협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리텔 주교가 자신의 기질을 잘 알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3월에 떠날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를 갖추겠다는 말도 남겼다.<sup>50)</sup>

하지만 로마에 도착한 리텔 주교는 폐롱 신부에게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통보하였다. 즉, 리텔 주교는 싱가포르까지 와 있던 폐롱

49) A-MEP: Vol. 579, ff. 1698-1699.

50) A-MEP: Vol. 579, ff. 1726-1728.

신부에게 1870년 5월 24일 서한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조선에서 받은 소식에 따르면 무덤 도굴 원정 때문에 박해가 한층 극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폐롱 신부님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선 선교지에 큰 해악을 초래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선 조정과 외교인들도 모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자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우리의 적이 되어버렸으며, 폐롱 신부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폐롱 신부님은 조선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sup>51)</sup>

이튿날인 1870년 5월 25일 리텔 주교는 파리의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로마에 있던 리텔 주교는 지도자들이 보낸 5월 16일 서한을 받고 지도자들이 폐롱 신부에게 싱가포르에서 머물며 리텔 주교의 결정을 기다리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알게 되었다. 5월 16일 서한을 통해 지도자들은 리텔 주교에게 서둘러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했기에 자신은 마음보다는 이성애 따른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조선에서 온 최근 소식을 미루어볼 때 폐롱 신부가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풍디세리의 라우에낭(Laouënan) 주교가 여전히 폐롱 신부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으니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sup>52)</sup>

폐롱 신부는 파리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1870년 7월 15일 서한에서 리텔 주교의 결정을 흔쾌히 수용하였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풍디세리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자란 땅에 되돌아갈 자격이 없고, 전장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8일 후 풍디세리로 떠나겠습니다.”<sup>53)</sup> 그러면서 폐롱 신부는 파리 신학교 지도자 테송(Tesson) 신부에게 보낸 1870년 7월 15일 서한에서 풍디세리 선교사로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떠난다는 것을 밝힌다. “1851년 조선을 향해 가는 도중 말레이시아를 떠나 페낭에서 귀주로 임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하나 지금은 훨씬 즐겁게 받아들이

51) A-MEP: Vol. 579, f. 1731.

52) A-MEP: Vol. 579, ff. 1734-1735.

53) A-MEP: Vol. 579, f. 1742.

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 철이 들었기 때문인 듯합니다.”<sup>54)</sup>

## VI.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1867년 5월부터 1870년 5월까지 3년 동안 상하이와 파리를 오고 갔던 선교사들의 서한들을 통하여 덕산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에서 폐롱 신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폐롱 신부는 병인양요와 같은 대규모 군사 작전으로는 조선 천주교회의 회생을 도모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조선 조정에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 조정의 중재를 통하여 박해를 종식시키고 신자들과 선교사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 주재 프랑스 공사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한 탓인지 폐롱 신부는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미명 아래 조선 위정자 조상의 유골 탈취라는 기상천외한 시도를 감행하였다.

덕산 사건이 낳은 엄청난 파장은 폐롱 신부 개인의 위신 추락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가열되고, 강상의 윤리를 도외시하는 극악한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직후부터 리델 신부를 비롯하여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폐롱 신부를 전출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선 교회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덕산 사건은 황사영 백서 사건과 더불어 박해 시대 한국 천주교회의 대표적인 스캔들로 남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활용하지 않았던 천주교 측의 문서 자료들을 통해서 덕산 사건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기존 연구가 제시한 시각 외에 또 다른 관점과 자료로 덕산 사건을 연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덕산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오페르트의 기록이 지닌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페르트가 독일로 돌아간 뒤에 함부르크에서 영사 재판을 받고

---

54) A-MEP: Vol. 579, ff. 1743-1745.

잠시 수감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함부르크에서 열린 영사 재판 기록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를 분석하여 1880년에 나온 오페르트 자신의 저술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밝힌다면 덕산 사건에서 오페르트가 수행했던 역할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55)</sup>

둘째로 폐룡 신부는 조선을 떠나 인도로 가서 1870년부터 1903년까지 34년 동안 풍디세리 대목구에서 활동하였다. 그렇다면 폐룡 신부가 훗날이라도 덕산 사건에 관한 자신의 심경을 술회한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sup>56)</sup> 파리의방전교회 문서고 풍디세리 문서철을 찾아보면 폐룡 신부의 회상이 담긴 기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마지막으로 덕산 사건에 연루된 조선 신자들이 누구였는지를 해명하는 문제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기존 연구의 논자들은 “최선일 등 한국인 천주교도 4명”<sup>57)</sup>, “사건을 제안할 당시에는 장치선, 김계쇠, 최인서 등이 있었고, 안내자로 온 것은 최인서와 최선일, 이영중”<sup>58)</sup>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그 근거 사료를 찾아본 결과 조선 신자들의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sup>59)</sup>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물은

55) 2011년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가 함부르크 민속박물관을 통하여 오페르트의 영사 재판 기록을 입수하였다는 소식이 언론(《교수신문》, 2011년 12월 12일자 기사)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 서울학연구소에서 이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56)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에게 성사를 베풀기 위하여 여순 감옥을 방문했던 빌렘 신부는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안중근 의사와의 상봉 장면을 회상하는 편지를 남긴 바 있다.

57) 노계현, 앞의 논문(1982), 97쪽.

58) 이중국, 앞의 논문(1983)(E. J. 오페르트 저, 신복룡·장우영 역주, 앞의 책, 2000, 290-291쪽에서 인용함).

59) 노계현이 제시한 사료는 미합중국 외교 관계 문서철에 실린 중국 주재 총영사 G. F. 시워드(Seward)가 상하이에서 자신의 숙부이자 미 국무장관이었던 W. H. 시워드에게 보낸 1868년 4월 24일 서한(No. 282)과 1868년 7월 13일 서한(No. 106)이다. 그러나 문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조선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Papers Relating to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68, pp. 336-337). 한편 이국이 제시한 사료는 세 가지다. 그 가운데 『승정원일기』 고종 5년(1868) 음력 5월 22일자 기사에는 장치선과 최영준(최인서를 가리킴)이 바다를 건너가 도적들을 불러들이기도 한 일의 진상을 자복했다고 나온다. 장치선과 최인서가 상하이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들이 덕산 사건에 참가했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국이 덕산 사건의 안내인으로 최선일을 지목한 사료는 『고종시대사』 고종 5년(1868) 음력 4월 21일자 기사이다. 오페르트가 폐룡, 켈킨스 등과 함께 최선일 등을 선도로 하여 내한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고종시대사』는 『고종실록』이

최선일인데, 사료로 입증되지 않은 채 막연하게 덕산 사건의 안내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므로 1868년 5월에 덕산으로 갔던 조선 신자들이 누구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편찬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이 많다 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67년부터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을 참고하여 편년체로 간행한 역사서이다. 그러므로 사료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종시대사』 해당 기사의 원천 사료들을 다시 찾아내어 대조해야만 그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종국이 덕산 사건의 안내인으로 이영중을 지목한 사료는 『고종시대사』 고종 5년(1868) 음력 6월 16일자 기사이다. 확인 결과 16일이 아니라 18일이며, 그 내용도 오페르트 등이 구만포에 내박(來泊)했을 때 그들과 통래(通來)한 까닭에 참수하였다는 것이다. 문면을 보면 이영중이 오페르트 등과 같이 온 것이 아니라 내한한 그들과 만났다는 것이 죄목이다. 『승정원일기』에도 이영중은 구만포에 서양 선박이 와서 정박하였을 때 찾아가서 보고 응대한 죄목으로 처형했다고 나온다.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펠릭스 클레르 리텔 저, 한국교회사연구소 번역위원회 역주, 『리텔 문서 I』.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파리의방전교회 한국 관계 문서철 관독 자료집』. 2011.

A-MEP(Archives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 Vol. 330, 330-2, 579, 580, H8 Lettres de Corée au P. Rousseille 1867-1868, H8 Lettres de Corée 1869-1871.

Oppert, Ernst(1880), *Ein Verschlossenes Land, Reisen nach Corea*. Leipzig: F. A. Brockhaus; Oppert, Ernst(1880), *A Forbidden Land: Voyages to the Corea*. London: Sampson Low, Marston, Searle, and Rivington; 에른스트 오페르트 저, 한우근 역, 『조선기행』. 일조각, 1974; E. J. 오페르트 저, 신복룡·장우영 역주, 『금단의 나라 조선』, 집문당, 2000.

*Papers Relating to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868.

### 2. 단행본

유홍렬, 『고종치하 서학수난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2.

방상근 외, 『한국천주교회사 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 3. 논문

노계현, 「오페르트의 남연군 분묘 도굴만행과 한국의 조치」. 『국제법학회논총』 27권 1호, 1982.

노혜경, 「오페르트의 조선 인식」. 『역사와 실학』 55, 2014.

박일근, 「켄킨스에 대한 주 상하이 미 영사재판: 남연군 묘소 도굴사건에 관하여」. 『부산대학교 논문집』 11, 1970.

원재연, 「오페르트의 덕산굴총사건과 내포 일대의 천주교 박해: 문호개방론과 관련하여」. 『백제문화』 29, 2000.

이중국, 「오페르트 굴총 사건의 진입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17, 1983.

## 국 문 초 록

1868년 5월 충청도 덕산읍에서 서양인들이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일은 흔히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나 ‘덕산 굴총 사건’ 등으로 불리는데, 이 글에서는 덕산 사건이라고만 칭하였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 미국 기업인 젠킨스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 페롱 등이 탈취한 남연군의 유골로 조선의 위정자를 협박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덕산 사건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사건의 발단과 경위를 설명할 때 거의 전적으로 오페르트가 남긴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사건의 진행 과정과 사후 처리에 관해서는 상하이에서 벌어진 국제 영사 재판 기록을 부분적으로 참고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인 페롱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이용되지 않았던 천주교 측의 프랑스어 자료를 사용하여 덕산 사건과 페롱의 관계에 대해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페롱이 왜 그런 계획을 세웠고, 또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나아가서 페롱의 행동에 대해서 당시 중국에 머물고 있던 동료 선교사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먼저 페롱이 남긴 서한 자료 속에서 덕산 사건을 계획한 동기,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변명 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페롱과 함께 조선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머물고 있었던 리텔, 칼레, 그리고 조선 대목구의 신임 선교사로 부임한 마르티노, 그 밖에 파리외방전교회 상하이 대표부와 홍콩 총대표부의 동료 선교사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페롱 신부를 비난하였다는 사실도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결국 페롱은 동료들로부터 조선 천주교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조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었으며, 대신에 남인도의 풍디세리 지방으로 전출되었다.

**투고일** 2017. 6. 19.

**심사일** 2017. 7. 4.

**게재 확정일** 2017. 8. 24.

**주제어(keyword)** 남연군(Nam-Yeon Goon), 도굴 사건(tomb robbery), 페롱(Féron), 천주교(Catholicism), 파리외방전교회(The Society of Foreign Missions of Paris), 선교사(missionary)

